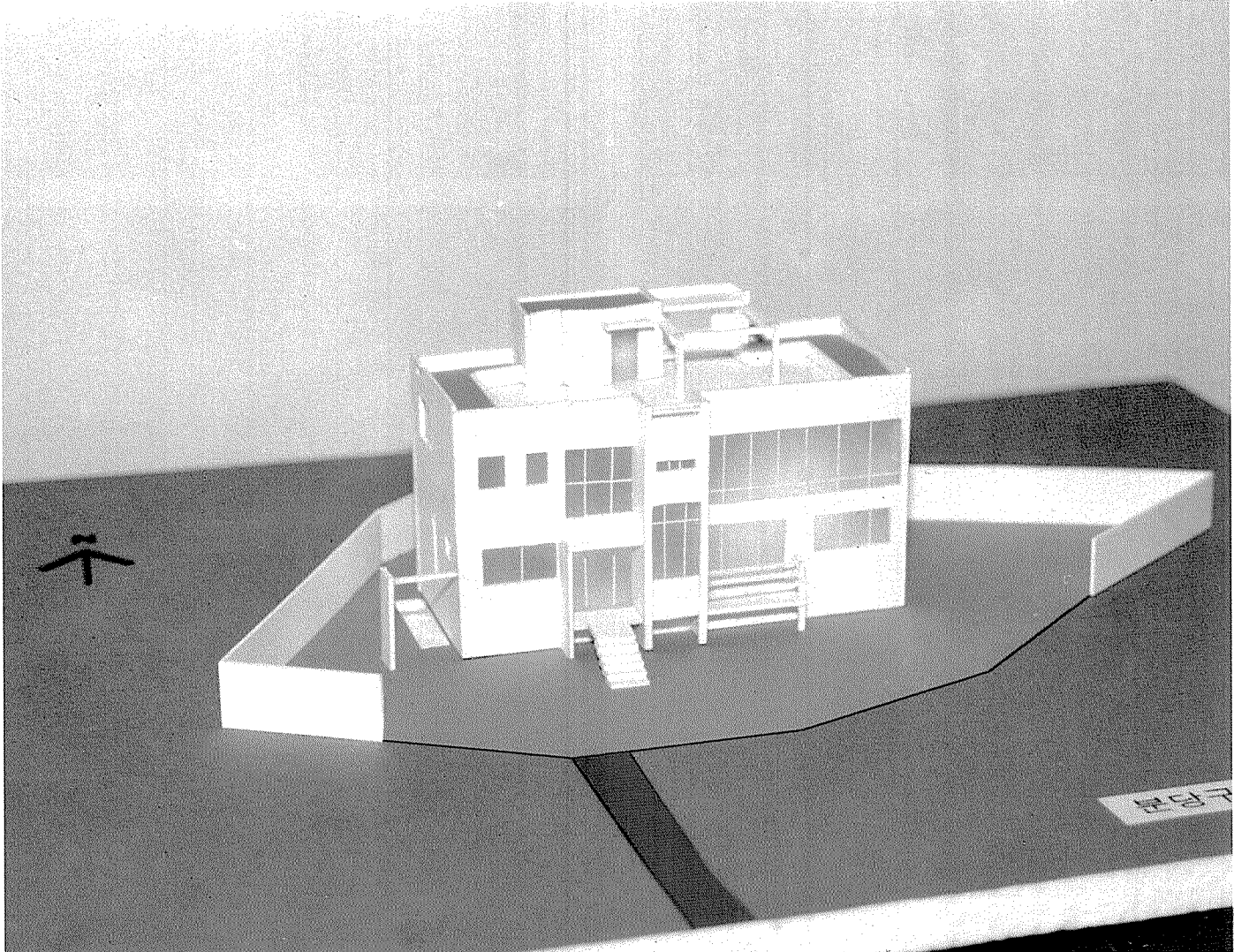


# 분당 K씨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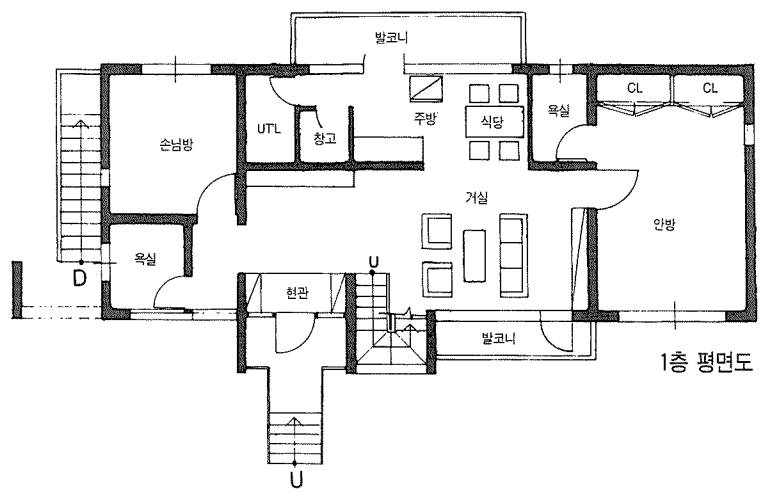
Mr. K's House in Puntang-gu

金錫桓/터·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k-H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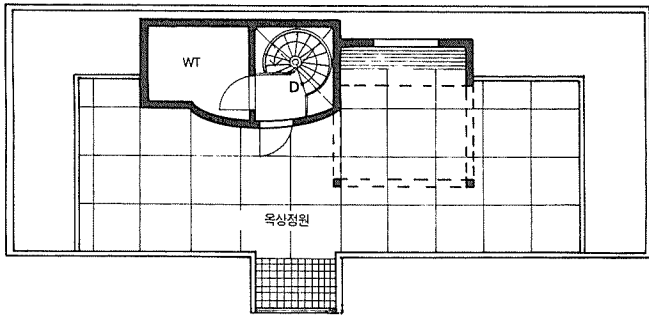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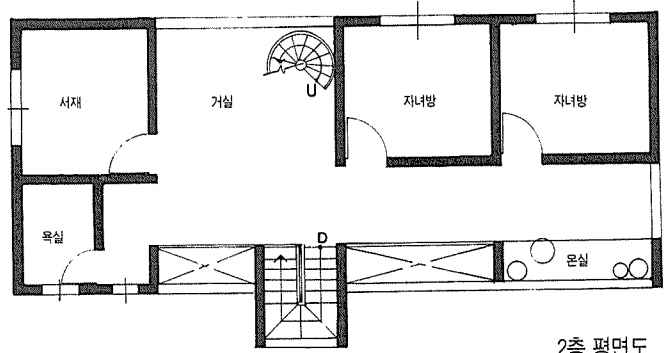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95-2  
 대지면적 / 400.00㎡  
 건축면적 / 79.92㎡  
 연면적 / 210.10㎡  
 건폐율 / 19.95%  
 용적율 / 37.95%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 외벽-드라이비트  
 창호-컬러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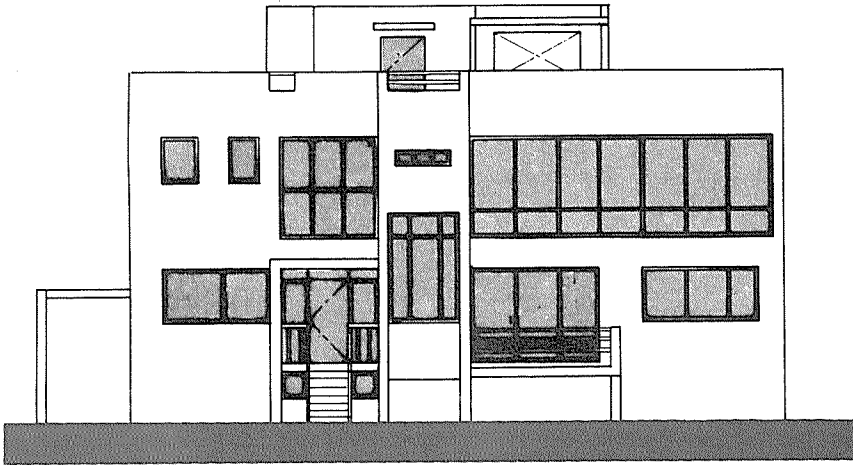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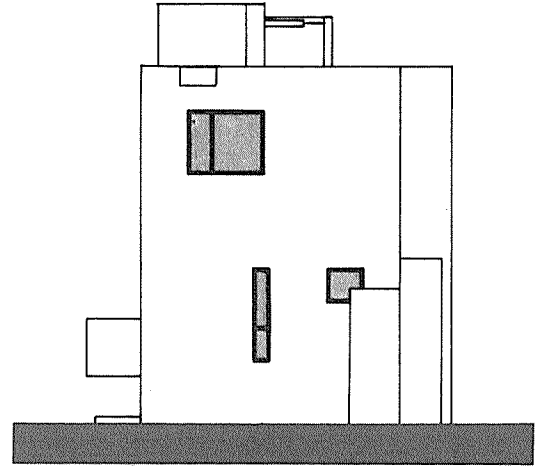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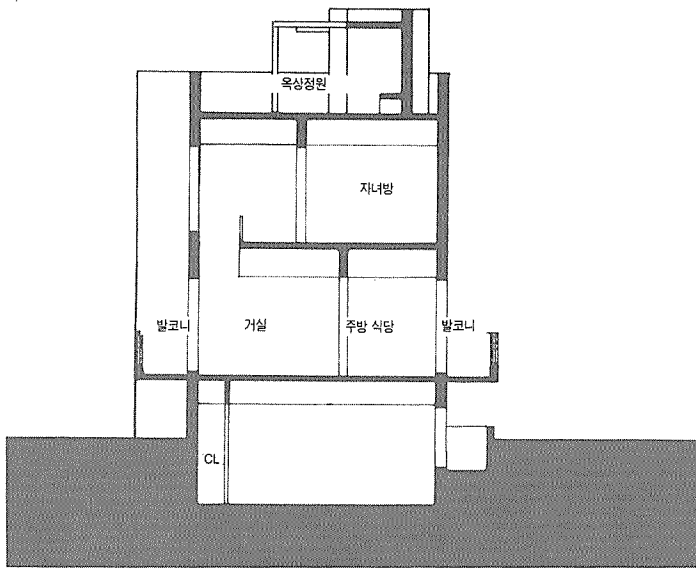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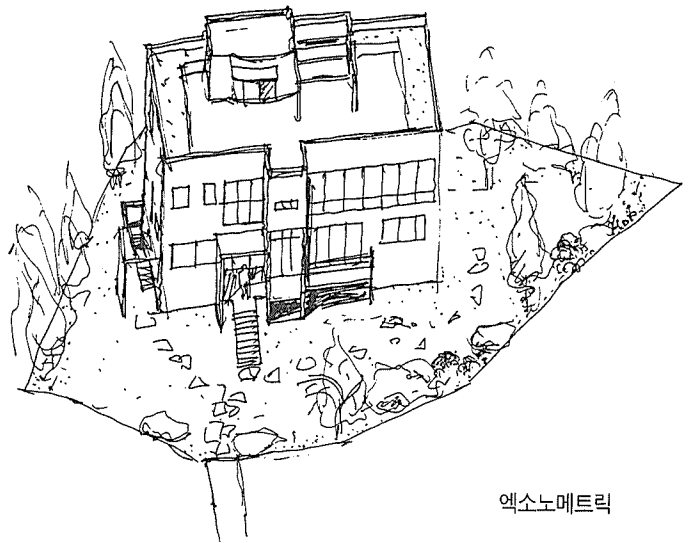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엑소노메트릭

건축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나 어디에나 태어날 수 있다. 수요자가 요구하는 몇개의 방과 거실, 식당, 화장실과 같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진보된 축조기술에 의해 무한정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설의 힘만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술의 진보가 심미적인 감동의 충족까지 해결해 줄 수 있지는 못하다.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건축은 최종적으로 건축가가 심미적인 감성을 불어 넣음으로서, 비로소 사물의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건축은 처음부터 미의 형상을 위해 잉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는 건축에 미적 균형을 갖게하기 위해 고심한다. 근대건축의 미

학에는 고전적인 법칙의 적용이 유효하지도 않고, 인위적인 장식의 힘이 발휘하지도 못한다. 현대 건축가는 형태미의 창조에 있어서 추상예술가와 같은 예민한 감각에 지탱할 수 밖에 없다.

이 주택의 대지는 분당구 하산운동에 위치하여 있다. 대지면적은 120평 정도로서 서울과 같은 도시 조건에서는 꽤 여유있게 느껴지는 규모이지만 자연 녹지지역에 규정된 20%의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축면적의 최대는 24명을 넘을 수 없어서, 교외지에 세워지는 단독주택으로서 기대했던 넉넉한 일층 평면을 꾸미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1, 2층이 개방된 공간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대지조건에 맞춘배치와 공간의 집적에 의해 장방형의 매스가 되었다. 여기

서는 단순한 매스가 내부에서 개방적인 공간을 얻기에 더 편리하였다. 내외부 공간의 경계로서 현관을 강조하고, 계단실 및 지붕시설의 조형요소에 의해 단조로움을 깨뜨리며 수직수평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하였다. 지붕은 일상생활에서 독립된 또다른 세계의 장소로서, 현대인의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명사의 정원이 된다. 나는 경사지붕보다 평지붕을, 연와 벽돌벽 보다, 평평한 흰 벽면을 더 좋아한다. 이 건물의 순수한 매스가 짙은 녹음의 배경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건축주를 기다리게 하려한다.